

한국어와 영어에 있어서의 조용 표현 비교

배태영

0. 본고에서 조용 표현 (anaphoric expression) 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맥 (context) 에서 한 번 나타난 요소, 즉, 선행사 (antecedent) 를 대신하는 형태, 다시 말하면, 조용어 (anaphora) 로 받는 것을 말한다. 영어에서 구체적인 예를 들면, 대명사, 재귀 대명사, 대동사, 관계 대명사 등을 가진 표현이 그것이다. 그리고 변형 문법 이론에서는 다음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조용어가 공 (empty) 의 형식을 취하는 공대명사 (empty pronoun = PRO) 의 경우도 조용 표현으로 생각한다.

- (1) a. John promised Bill [PRO to leave].
- b. John persuaded Bill [PRO to leave].

위에 든 조용 표현 중에서, 본고에서는 영어의 대명사에 초점을 맞추어, 언어적 보편성이라는 관점에서, 한국어에 있어서의 이에 대응하는 조용 표현을 변형 문법의 형틀 안에서 대조 고찰해 보려고 한다.

1.1. 먼저 영어에서 말하는 대명사와 동일한 어류 (word class) 의 대명사를 한국어에서도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로, 영어의 대명사에는 굴절 (inflection) 이 있으나 한국어의 그것에는 굴절이 없다.

둘째로, (2)에서와 같이 영어의 대명사는 형용사에 의한 수식을 받을 수가 없는데 대하여, 한국어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

- (2) a. the beautiful girl : * beautiful she
- b. 아름다운 소녀 : 아름다운 그녀

세째로, 다음의 예에서도 그 차이가 나타난다.

- (3) *John_i does his_i work when he_i feels like doing it.*
- (4) 존_i 은 그_i 가 그_i 의 일을 하고 싶을 때에 그_i 의 일을 한다.

(4)는 비문법적인 문장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한국어의 문장으로서의 자연스러운 문장이 아니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것이 부자연스러운 것은, 그가 반복해서 단일문에 일어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한편 (3)에서는 *he, his* 가 반복해서 일어나도 그와 같은 부자연성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위에서 든 영어와 한국어에서 일어나는 차이 때문에 한국어에 있어서의 대명사의

존재 여부를 의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첫째로 든 차이는, 한국어 자체가 굴절을 가지지 않는 언어로, 그것은 대명사에 한하는 것이 아니며, 둘째로, 한국어의 대명사가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 것으로 보아 보통 명사와 같은 성질을 가진 것 같으나, 지시사(demonstratives)와 함께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5) 저 소녀 (that girl) : *저 그녀 (* that she)

(4)의 부자연성에 대해서는, 그것이 곧 한국어의 대명사를 부정할 이유는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다음 (6)에 대응하는 (7)과 같은 문장에서는 조용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가 당연히 허락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6) *John_i does not want to do his_i work at all.*

(7) 존_i은 그_i의 일을 도무지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영어와 한국어에 있어서의 대명사 사이의 뚜렷한 차이는 그 조용 형식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어 문장 (3)에 대응하는 한국어의 자연스러운 표현 중의 하나는 다음 (8b)이며,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해석은 (8a)에 보여주고 있다.

(8) a. 존_i은 [존_i이 존_i의 일_j을 하고 싶을 때] 존_i의 일_j을 한다.

b. 존_i은 하고 싶을 때 일_j을 한다.

여기서 (8a)가 (8b)로 실현되려면, 동일 지칭적 (coreferent) 명사구가 하나만 남고, 다른 것은 모두 음성적으로 표현되지 않는 「공」(empty)의 형식을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결국 한국어에는, 영어에서 *he/his* 등으로 표현되는 자리에, 두 가지의 조용 형식, 즉, 영어처럼 「그」로 표현되는 형식과 음성적으로 「공」으로 표현되는 형식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한국어에 있어서의 「공」의 형식의 조용 표현은 「그」와 서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독자적인 표현 가치를 가지고 있다. 다음 (10)은 영어 문장 (9)에서 이끌어내어 한국어로 옮겨 놓은 것이다.

(9) *After he finished school, John went straight home.*

(10) { * 그_i가 } 수업을 마친 후에, 존_i은 바로 집으로 갔다.
φ_i

(9)에서는 *he*와 *John*이 동일 지칭적이냐, (10)에서는 그와 존이 동일 지칭적이지 않다. 여기에서는 「공」의 형식의 표현만이 동일 지칭적이다.

여기서 「그녀 / 그」 등 어휘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휘 대명사」(lexical pronoun), 음성적으로 공(empty)의 조용 형식을 「제로 대명사」(zero pronoun)¹라고

¹ 이하에서 제로 대명사는 φ로 표기한다. 여기 φ는 (1)의 PRO와는 그 개념이 다르다. φ는 영어에서 어휘 대명사 *he, she* 등으로 나타나는 자리에 한국어에 나타나는 두 가지의 조용 형식 중의 하나이다.

부르기로 하고, 이들 조용 형식의 차이점 및 한국어 조용 관계는 어떠한 원칙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영어에 있어서의 대명사의 조용 관계와 비교하며 살펴 보려고 한다.

1.2. Reinhart (1976:76)에 의하면, (11)의 세 문장 중에서 두 개의 명사구 간에 조용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11b) 뿐이다.

- (11) a. *In Ben's office, he spends a lot of time.
 b. In his office, Ben spends a lot of time.
 c. *In Ben's office, Ben spends a lot of time.

한편, (11)에 대응하는 (12)에서 그와 벤은 동일 지칭적이라 할 수 없다.

- (12) a. * 벤의 사무실에서, 그는 장시간을 보낸다.
 b. * 그의 사무실에서, 벤은 장시간을 보낸다.
 c. ? 벤의 사무실에서, 벤은 장시간을 보낸다.
 d. ∅ 사무실에서, 벤은 장시간을 보낸다.

(11b)에서와 동일한 조용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제로 대명사를 사용한 (12d)이다.

다음(13)은 (11b)라기보다는 오히려(14)에 대응하는 것이나 a, b 모두가 의도된 조용 관계가 성립한다.

- (13) a. 벤_i은, ∅_i 사무실에서 장시간을 보낸다.
 b. 벤_i은 그_j의 사무실에서 장시간을 보낸다.

(14) Ben spends a lot of time in his office.

(13b)의 그는 (12a,b)와는 달리, 벤과 동일 지칭적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나, 동시에 벤 이외의 사람을 지칭할 가능성도 같은 정도로, 또는, 그 이상으로 강하다.

이와같이 (11b) 및 (14)에서 의도한 조용 관계를 확실히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제로 대명사를 사용한 (12d) 및 (13a)이다. (13b)도 동일한 독해가 가능하나 선행사를 특정하는 힘은 제로 대명사쪽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²

²(13)의 그가 벤을 지칭하는 것보다, 벤 이외의 사람을 가리키는 가능성이 강한 것은, 제로 대명사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주어와의 조용의 애매성을 피하기 위해서는 달리 다음과 같은 형을 취하는 것이 또한 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다.

(i) 벤은 자기의 사무실에서 장시간을 보낸다.

(i)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로 대명사가 일어나는 곳에 재귀 대명사로 대체해도 의미의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 따라서 제로 대명사는 재귀 대명사화 후에 어떤 조건하에서 재귀 대명사가 삭제된

다음의 Ross(1967)의 예를 생각해보자

- (15) a. If *Jim* feels good, *he* will go.
 b. If *he* feels good, *Jim* will go.

(15)에 대응하는 한국어를 어휘 대명사와 제로 대명사를 사용하여 표현하면 아래와 같이 된다.

- (16) a. * 짐이 기분이 좋으면, 그는 갈것이다.
 b. * 그가 기분이 좋으면, 짐은 갈것이다.
 (17) a. ϕ 기분이 좋으면, 짐은 갈것이다.
 b. 짐은, ϕ 기분이 좋으면, 갈것이다.

영어 문장 (15)는 a, b 모두 Jim과 he가 동일 지칭적이라는 해석이 성립된다. 그러나 (15)와 같은 해석이 가능한 한국어 문장은 제로 대명사를 사용한 (17)이며, 어휘 대명사를 사용한 (16)은 그러한 해석이 될 수 없다.

이상에서 분명한 바와 같이, 한국어의 어휘 대명사와 제로 대명사는 항상 서로 바꾸어 놓는 것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실형 서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지시 기능이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다.

2. 1960년대 초 대명사가 현대 문법의 형틀 속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이래, Langacker (1966)와 Ross (1967)를 비롯해서, Lakoff (1968), Wasow (1972), Kuno (1975), Lasnik (1976), Reinhart (1976) 등 많은 학자에 의해 제안된 규칙 및 제약이 있으나, 이들 조건은 그것이 대명사의 파생에 관한 것이건, 해석에 있어서의 제약이건, 선행 (precede)과 통어 (command)가 두 개의 큰 요인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 되어온 여러 가지 논의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논의로 하고³, 그것이 의미론적 해석이 요청되건, 화용론적 정보에 기인하건, 영어의 조용관계가 영어의 통사적 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어의 조용 관계는 어떠한 원칙에 따르는 것일까? 이 절에서는 주로 Reinhart (1976)의 분석을 참조하면서 생각해 보기로 한다.

2.1. Reinhart (1976:125)는 다음과 같은 제약 (coreference restriction) 을 제안하였다.

결과라고 보는 학자도 전에 있었으나, 제로 대명사가 일어나는 모든 곳에 재귀 대명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ii) 마리아는 영화를 좋아하므로, $\left\{ \begin{array}{l} \text{그녀는} \\ \phi \\ \text{*자기는} \end{array} \right\}$ 일요일마다 영화관에 간다.

³이점에 관해서는 Kong (1981)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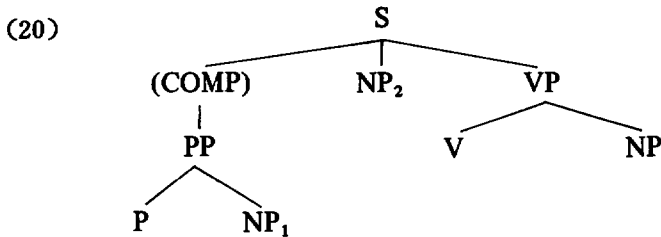
- (18) Two NP's cannot be coreferential if one is in the syntactic domain⁴ of the other and is not a pronoun (where the domain is defined by the c-command⁵ relation).

그리고 Wasow (1979)는 Reinhart (1976)의 위에서의 성분 통어 조건 (c-command condition = CCC)은 언어 보편적 제약일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1.2.에서 든 예에서 본 한에서는 한국어는 CCC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Wasow의 견해를 부정하는 것이라기보다 한국어의 구조적인 특성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먼저 Reinhart (1976:76)의 예를 보기로 한다.

- (11) a. *In Ben's office, he spends a lot of time.
 b. In his office, Ben spends a lot of time.
 c. *In Ben's office, Ben spends a lot of time.
- (19) a. In Ben's family, he is the genius.
 b. In his family, Ben is the genius.
 c. In Ben's family, Ben is the genius.

위의(11), (19)는 동일한 구조 같아 보이나 조응 관계가 다르다. 이것은 Reinhart (1976:75)에 의하면, 다음(20), (2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은 구조상의 차이에 의하여 설명되어진다.

(11)은 다음(20)과 같은 구조를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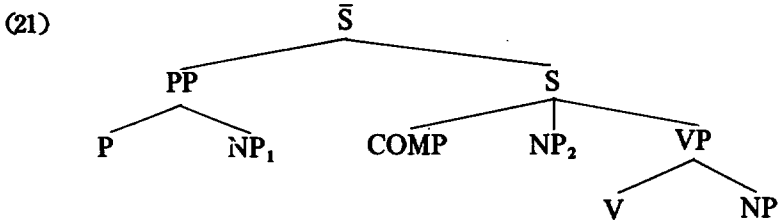
(20)의 전치사구 (PP)는 동사구전치사 (VP - PP)로서 문두의 위치에서는 COMP아래 놓이게 된다. 따라서 NP₁은 NP₂에 성분 통어 (c-command)되는 것으로 되어 CCC가 적

⁴ The domain of a node A consists of A together with all and only the nodes c-commanded by A. (Reinhart, 1976: 33.)

⁵ Constituent Command Condition (CCC)

Node A c (constituent) - commands node B if neither A nor B dominates the other and the first branching node which dominates A dominates B. (Reinhart, 1976: 32)

용된다. 따라서, (11b)는 조응 관계가 성립되어 정문이지마는, (11a)는 명사 *Ben*이 대명사 *he*에 c-command 되어 비문으로 되고, (11c)는 c-command되는 NP₁이 대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조응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역시 비문으로 되는 것이다. 한편, (19)는 다음 (21)과 같은 구조로 표현된다.



(21)의 PP는 문장전치사구 (S-PP)로서, 상위의 S, 즉, S̄에 지배되며, NP₁과 NP₂는 각기 다른 syntactic domain에 속하게 되어, 서로가 다른 쪽을 c-command 하지 않는다. 따라서 (19)의 조응 관계는 자유인 것이다.⁶

다른 한편, (19)에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인 다음 (22)에서 문제가 되는 두 개의 명사구 사이에 조응 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은 d, e, f 뿐이다. 이것은 (11)에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인 (12), (13)의 경우와 동일하다.

- (22) a. * 벤의 가족 중에서, 그는 천재다.
- b. * 그의 가족 중에서, 벤은 천재다.
- c. ? 벤의 가족 중에서, 벤은 천재다.
- d. ϕ 가족 중에서, 벤은 천재다.
- e. 벤은, ϕ 가족 중에서, 천재다.
- f. 벤은 그의 가족 중에서, 천재다.

⁶ 일반적으로 S에는 보물자 (COMP)는 단 한 개 존재하며, 이 COMP가, 예를 들어, 전치된 MP로 메어지는 경우, 다른 요소, 예를 들면, WH(-word), Q(uestion), Imp(erative) 등이 COMP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Reinhart (1976:71)는 위의 제약은 S-PP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다음과 같이 예를 들어 반론하고 있다.

- (i) a. In Washington, who do they worship? (S-PP)
- b. *In Detroit, who did the gangsters kill? (VP-PP)
- (ii) a. In Ben's picture, does Rosa look her best? (S-PP)
- b. *In Bens picture, does Rosa find a scratch? (VP-PP)

(ib), (iib)가 비문인 것은 COMP가 VP-PP에 의해서 메어진 위에 다시 WH-word나 Q가 들어섰기 때문이며, (ia), (iia)가 정문인 것은 S-PP는 COMP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COMP를 지배하고 있는 S절점 (node)보다도 더 높은 S̄에 붙는다고 Reinhart는 생각하고 있다.

Reinhart (1978:78)의 다음 예에서도 마찬가지다.

- (23) a. When *Rosa* finishes school, *she* will go to London.
 b. When *she* finishes school, *Rosa* will go to London.
- (24) a. *When *Rosa* finishes school, *she* has promised Ben that she will go to London.
 b. When *she* finished school, *Rosa* has promised she will go to Lond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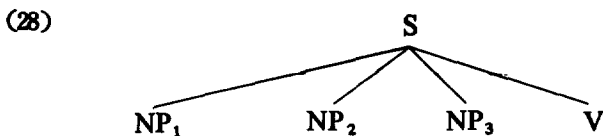
(23)에서는 *when* 절은 문장수식어로서 주절과 syntactic domain 이 다르기 때문에 조응 관계가 자유이나, (24)의 *when* 절은 동사구에서 이끌어 낸 것으로서 주절과 같은 syntactic domain 에 속하기 때문에 CCC에 걸리게 된다. 따라서 조응 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b뿐이다. 그러나 (23),(24)에 대응하는 한국어 (25), (26)에서는 그러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 (25) a. * 로자가 졸업하면, 그녀는 런던으로 갈 것이다.
 b. * 그녀가 졸업하면, 로자는 런던으로 갈 것이다.
 c. * \emptyset 졸업하면, 로자는 런던으로 갈 것이다.
 d. * 로자는, \emptyset 졸업하면, 런던으로 갈 것이다.
- (26) a. * 로자가 졸업하면 그녀는 런던으로 간다고, 그녀는 벤에게 약속했다.
 b. * 그녀가 졸업하면, 그녀는 런던으로 간다고, 로자는 벤에게 약속했다.
 c. \emptyset 졸업하면 \emptyset 런던에 간다고, 로자는 벤에게 약속했다.
 d. 로자는, \emptyset 졸업하면 \emptyset 런던에 간다고, 벤에게 약속했다.

Hale, Janne, and Platero (1977)에 의하면 한국어와 같은 비계층적 언어 (non-configurational language)는 문장이 다음 (27)과 같은 구조로 전개된다.

$$(27) S \rightarrow NP_1, \dots, NP_n,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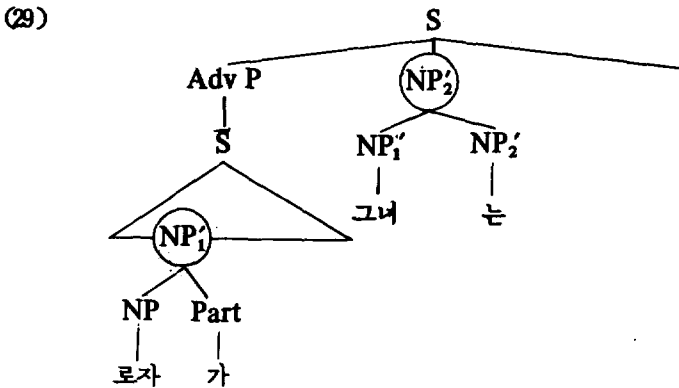
$n = 3$ 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27)은 다음과 같은 구절 구조도를 나타낼 것이다.



영어와는 달리 NP에 대한 문법적인 기능의 지정이 매우 자유롭다. 바꾸어 말하면,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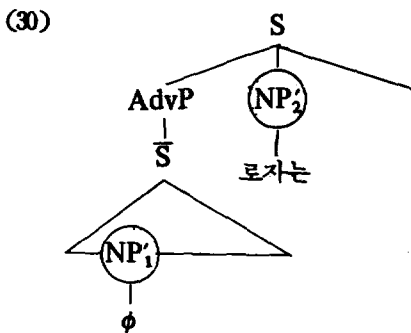
에 있는 어는 NP도 주어나 목적어가 될 수 있다. 부사적 요소인 경우는 문두, 또는, 첫 번째 NP와 두 번째 NP와의 사이에 놓이는 것이 보통이나, NP와의 어순 관계가 비교적 자유로운 것에서, 부사적 요소도, 또한, S에 직접 지배된다고 생각된다. 문장 수식의 부사는 문두에, 동사 수식의 부사는 될 수 있는 대로 동사에 가까이 둔다고 하는 원칙은 있으나 양자간에 (20), (21)에서 보이는 차이는 없다. (11)과 (19), (23)과 (24) 사이에 나타나는 조응 관계의 차이가 한국어에 보이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며, 한국어에 CCC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은 아닌 것 같다. 지금까지의 한국어의 예에 있어, 어휘 대명사가 명사의 좌편에 있는 경우 ((12b), (22b), (25b), (26b))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CCC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25)의 문장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25) a. * 로자가 졸업하면, 그녀는 런던으로 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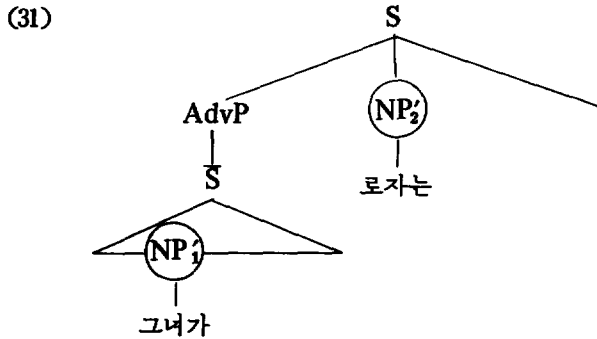
(29)에서 NP₁'은 NP₂'에 c-command 되어 (18)의 조응 제약에 걸리게 된다. 따라서 로자와 그녀는 조응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25) c. ∅ 졸업하면, 로자는 런던으로 갈 것이다.



(30)에서는 NP₁'이 NP₂'에 c-command 되어있고 대명사이기 때문에 조용 제약에 걸리지 않는다. (25d)도 AdvP와 NP₂'자리가 바뀔 뿐이므로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25) b. * 그녀가 졸업하면, 로자는 런던으로 갈 것이다.



(31)에서는 NP₁'이 NP₂'에 c-command 되고, 또한, 대명사이므로, 조용 관계가 성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와는 반대이다. 여기에는 선행의 조건 (precede condition) 과 관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2.2. 그러면 조용 관계와 선행의 조건 (PC) 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를 살펴 보기로 한다.

Reinhart (1976:23)의 예인 (32), (33)과 그것에서 이끌어 낸 한국어 문장인 (34), (35)와를 비교해보자

- (32) a. Near *him*, *Dan* saw a snake.
- b. In *her* bed, *Zelda* spent her sweetest hours.
- c. For *his* wife, *Ben* would give his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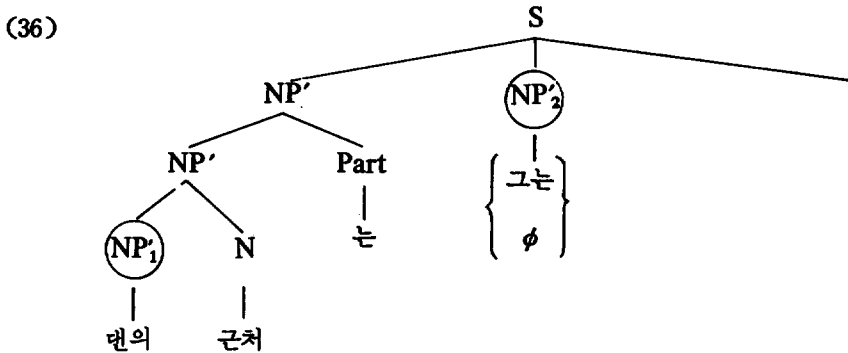
- (33) a. *Near *Dan*, *he* saw a snake.
- b. *In *Zelda's* bed, *she* spent her sweetest hours.
- c. *For *Ben's* wife, *he* would give his life.

- (34) a. { *그의 / ϕ } 근처에, 덴은 뱀을 봤다.
- b. { *그녀의 / ϕ } 침대에서, 젤다는 가장 기분 좋은 시간을 보냈다.
- c. { *그의 / ϕ } 아내를 위해서라면, 벤은 생명이라도 바칠 것이다.

- (35) a. 덴의 근처에, { *그는 / *ϕ } 뱀을 봤다.

- b. 젤다의 침대에서, $\left\{ \begin{matrix} * \underline{\text{그녀}} \\ * \phi \end{matrix} \right\}$ 가장 기분 좋은 시간을 보냈다.
- c. 벤의 아내를 위해서라면, $\left\{ \begin{matrix} * \underline{\text{그}} \\ * \phi \end{matrix} \right\}$ 생명이라도 바칠 것이다.

(33)의 문장이 모두 비문법적인 것은, 대명사가 선행사를 c-command 하고 있어 조음 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32), (33)에서 이끌어 낸 한국어 문장 (34), (35)를 보면, 여기에서도 제로 대명사에 관해서는 영어와 동일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 (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35a)는 CCC에 위반되고 있다.



어휘 대명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35)뿐만 아니라, (34)도 조음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어휘 대명사는 CCC외에 다시 다른 제약이 관계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다음 (37)을 (34)와 비교해보자

- (37) a. 벤은, $\left\{ \begin{matrix} \underline{\text{그}} \\ \phi \end{matrix} \right\}$ 근처에, 뱀을 봤다.
- b. 젤다는, $\left\{ \begin{matrix} \underline{\text{그녀}} \\ \phi \end{matrix} \right\}$ 침대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c. 벤은, $\left\{ \begin{matrix} \underline{\text{그}} \\ \phi \end{matrix} \right\}$ 아내를 위해서라면, 생명이라도 바칠 것이다.

(37)에서는 (34)와는 달리, 제로 대명사뿐만 아니라 어휘 대명사를 사용한 것도 조음 관계가 성립하고 있다. (34)와 (37)과의 차이에서 어휘 대명사는 CCC외에 PC에도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

(34), (35), (37)에서 판단할 수 있는 한에서는 제로 대명사는 CCC를 따라야 하며, 어휘 대명사는 CCC와 PC의 두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것이 분명한 것 같이 여겨진다. 그러면 이들 조건만 충족시키면 조음 관계는 자유로이 성립되느냐 하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다음의 (38), (39)와 그에 대응하는 (40), (41)을 비교해

보라. (Reinhart, 1976:25)

(38) Near *Dan*, I saw *his* snake.

(39) In *Dan's* apartment, Rosa showed *him* her new tricks.

(40) a. 덴의 근처에, 나는 $\left\{ \begin{array}{l} * \phi \\ \text{그의} \end{array} \right\}$ 뱀을 봤다.

b. $\left\{ \begin{array}{l} * \phi \\ * \text{그의} \end{array} \right\}$ 근처에, 나는 덴의 뱀을 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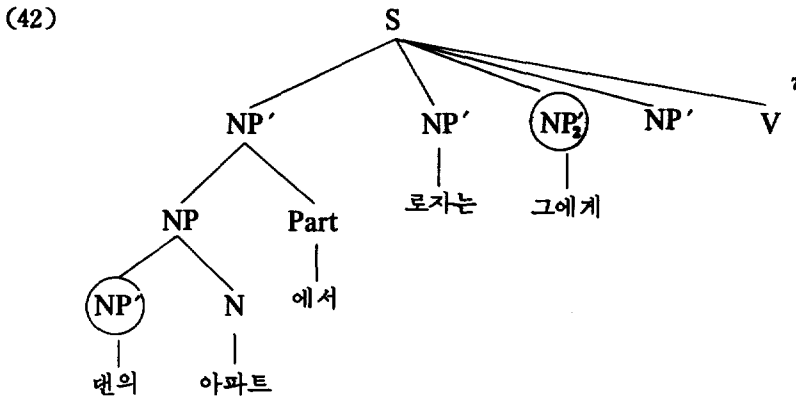
(41) a. 덴의 아파트에서, 로자는 $\left\{ \begin{array}{l} * \phi \\ \text{그에게} \end{array} \right\}$ 새로운 묘기를 보여주었다.

b. $\left\{ \begin{array}{l} * \phi \\ * \text{그의} \end{array} \right\}$ 아파트에서, 로자는 덴에게 새로운 묘기를 보여주었다.

영어 문장 (38), (39)는 조음 관계에 있어서 자유이다. 영어의 주어는, 그 구조상, 그 주어 를 직접 지배하는 S에 지배되는 다른 모든 요소를 c-command 하는 것으로 된다. 그 결과 (33)은 조음 제약에 위반되어 비문으로 되나, (38), (39)는 대명사가 VP에 지배되는 목적어이므로, 여기에는 CCC가 적용되지 않아 조음 관계가 자유이다.

(38), (39)에 대응하는 한국어 (40), (41)에 있어서는 어휘 대명사가 전방 조음적으로 사용될 때에만, 즉, 선행사-대명사 순서로 놓일 때에만 영어 문장과 동일한 조음 관계가 성립되고 있다. (40), (41)의 b문장에서 어휘 대명사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PC에 위반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으나, 제로 대명사가 예측되는 조음 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은 CCC, PC를 가지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영어 문장 (39)는 *Dan* 과 *him* 이 어느 것도 서로 다른 것을 c-command 하고 있지 않으나, 한국어 (41a)는 다음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덴이 그에 의해 c-command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휘 대명사를 사용한 문장은 정문으로 되고 있다.

여기서 지금까지 열거한 예들 중에서, 제로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고, 조음 관계가 성립되고 있는 문장은, 그것이 전방 조음적이건, 후방 조음적이건 간에 모두 주어가 선행사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35)와 (40), (41)의 차이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국어에서는, 조음 관계에 관련되는 명사구 중에서, 어느 한편이 주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조음 관계의 성립에 관계가 있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영어에서는 주어 여부가 조음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CCC로 설명이 되나, 한국어에서는 그것이 안되며, 주어라고 하는 사실 그 자체가 조음 관계의 성립 여부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3.1. 위에서의 관찰과 관련하여, 우리는 동일 지칭 domain 내에서 주어를 prominent NP로 가정하고, 선행사-대명사 연결에 있어서 prominent NP인 주어가 선행사인 것으로 일반화시키며, 인지 단위 (perceptual unit)를 동일 지칭 domain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한 Kong (1982)의 주장에 주의를 돌리지 않을 수 없다.

Kong (1982)은 Reinhart (1976)가 c-command 개념을 사용해서 문제된 자료의 상당수를 해결하였으나 여전히 문제로 남는 예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 (43) a. *In *Mary's* apartment, *she* was assaulted by a thief.
 b. In *Mary's* newly furnished apartment on 5th Ave., *she* was assaulted by a thief.
- (44) a. *In *Zelda's* bed, *she* spent her sweetest hours.
 b. In the bed which *Zelda* stole from the Salvation Army, *she* spent sweetest hours.

c-command 개념에 따르면, 위의 a,b문장에서 *Mary*와 *Zelda*는 각각 *she*의 domain에 속한다. 그런데 a,b문장이 다같이 c-command된 NP가 대명사가 아니어서 조응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다같이 비문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는 정문이고 다른 하나는 비문으로 되어 있다.

Kong (1982)은 rule domain의 설정에 있어 (43), (44)가 제기하는 문제는 정적 모형인 통사론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성격의 것이라 믿고 있으며, 이 문제 해결은 오직 동적 개념의 구사가 가능한 인지모형 (perceptual model)을 도입해야만 비로소 일반성있는 원칙의 적용을 통한 rule domain의 설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⁷한국어도 영어와 마찬가지로 VP절점을 인정해서 [_S NP [_{VP} NP V]]처럼 전개된다고 하면, (41)도 CCC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에 이러한 구절 구조를 생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언어 현상에 합치하지 않는다. 실례 이러한 구절 구조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40), (41)에서 제로대명사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CCC 제약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Reinhart 는 다음 (45), (46) 에 있어서,

(45) *In Ben's office, he spends a lot of time. (= (11a))

(46) In Ben's family, he is the genius. (= (19a))

이들 구조의 차이를, (45)의 PP는 VP-PP 로 보고, (46)의 PP는 S-PP 로 보아, (45)에서는 *he* 가 *Ben* 을 c-command 하기 때문에 조응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며, (46)에서는 *Ben* 과 *he* 가 서로 c-command 하지 않기 때문에, 조응 관계는 자유이라고 설명하였다.

Kong (1982)은 이 현상을 인지적 명제 단위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어떠한 구조 단위를 인지적 명제 단위로 분절하기 위해서는 문장의 나머지 부분 역시 독립된 인지적 명제 단위로 취급될 수 있어야 하는데 (45)에서는 문두의 전치사구가 순수한 부사적 기능만 갖고 있어 상황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11a)와 같은 문장 전체를 하나의 인지적 명제 단위로 취급한다. 이에 반해서 (46)에서는 문두의 PP가 구조상의 형태는 명제적 단위가 아니나, 문장의 의미상 thematic adverb 이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인지적 명제 단위로 취급한다. 따라서 (46)에는 두 개의 인지 단위가 존재하는 셈이 된다.

다음, rule domain 을 인지적 명제 단위로 규정하고, 동일 rule domain 에 속하는 명사 간에 선행사-대명사 관계가 성립될 때는 언제나 상대적으로 prominent 한 명사가 선행사가 되고, non-prominent 한 명사가 대명사가 된다는 대명사 규칙을 다음과 같이 설정했다.

(47) The parser never assigns a coreferential interpretation to two NP's in case the NP in non-prominent position is not a pronoun. (Kong, 1982: 22)

그리고 rule domain 내에서의 NP의 상대적 prominence 에 대해서는, 문장의 주어와 기타의 문장 구성 성분들에 비해 인지적으로 prominent 하다고 가정하고, 주어를 제외한 기타의 문장 구성 성분들은 배열 순서에 관계 없이 동등한 prominence 를 가지나, 배열 순서의 선후 관계는, 선행하는 명사를 뒤따르는 대명사의 지칭 대상으로 삼으려는 parser의 선행사 선행선호 (preference of preceding)가 작용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대략 이상과 같은 논의 하에 (43), (44)를 살펴보면, 각 a 문장은 문장 전체가 하나의 rule domain, 즉, 하나의 인지단위로서, prominent 한 주어와 대명사이고 non-prominent 한 기타의 구성 요소가 명사로 남아 있기 때문에 조응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b 문장을 살펴 보면, (43b)에 있어서는 전치사구와 문장의 나머지 부분을 별개의 rule domain 으로 취급할 통사적 근거는 발견할 수 없으나, thematic adverb 를 인지적 명제 단위로 취급하는 인지 모형의 입장에서는, 전치사구가 나머지 부분과 독립된 별개의

rule domain 으로 분절되어질 것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Mary* 와 *she* 는 조음 관계가 자유롭게 된다. 그리고 (44b)에 있어서도, 전치된 전치사구에 내포된 관계절은 독립된 인지 단위로 분절되어, 문장의 나머지 부분과는 별개의 인지 단위를 구성하게 되어, *Zelda* 와 *she* 는 각각 별개의 rule domain 에 속하므로 조음 관계는 자유인 것이다.

3.2. 그러면 Kong (1982)이 제안한 인지적으로 정의된 prominence 개념과 대명사 규칙이 한국어의 조음 관계를 다루는데도 영어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작용하는가를 살펴 보기로 한다.

지금까지의 본고에서의 고찰에서, 한국어의 조음 관계에 나타난 현상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48) a. 조음 관계에 관련된 명사구 중의 하나가 주어인 경우에는, 주어가 선행사라야 한다. ((12a), (16a), (22a), (25a), (26a), (34), (35), (37))
- b. 제로 대명사는, 그것이 전방 조용적이건, 후방 조용적이건, 주어를 선행사로 한다. ((13a), (17), (22a, e), (25c, d), (26c, d), (34), (35), (37))
- c. 어휘 대명사는 선행의 조건(PC)에 따른다. ((12b), (13b), (16b), (22b), (22f), (25b), (26b), (34), (37), (40), (41))
- d. 조음 관계에 관련된 명사구가 어느 것이나 주어가 아닌 경우 제로 대명사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48a)는 Kong (1982)에서 주어를 prominent NP로 가정하고, 선행사 - 대명사의 연결에 있어 조음 관계가 허용되는 경우는 모두 prominent NP인 주어가 선행사가 된 경우이고,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모두 prominent NP인 주어가 대명사가 되는 때인 것과 일치한다.

(48b)에서, 한국어에 있어서의 제로 대명사는 영어의 어휘 대명사와 마찬가지로, 전방 조용적으로도 후방 조용적으로도 쓰이는데, 주어가 선행사로 되어야 하는 것은 주어가 prominent NP이기 때문인 것으로 (48a)에서의 동일하게 Kong(1982)의 제안이 적용된다.

(48c)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어의 어휘 대명사가 선행의 조건을 따르는 것은, 영어 대명사와 두드러진 차이라 할 수 있다. 영어에서 대명사가 선행하는 경우 그에 대응하는 한국어에서는 언제나 제로 대명사가 일어난다.(앞에서 (fn.2) 언급한 바와 같이 제로 대명사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전방 조용에 있어서 어휘 대명사의 사용이 동시에 가능하다 하더라도, 제로 대명사를 사용하는 편이 더 자연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제로 대명사가 일어나는 자리에 어휘 대명사가 일어나면 그것이 뒤따르는 명사와 조음 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그 선행사를 앞에서 찾으려는 parser의 선행사 선행 선호의 성향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CCC의 제약을 받고 있지 않으면서도 조음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25b)를 설명할 수가 있다.

(48d)는 (48a), (48b)에서 유래하는 당연한 결과이다.

앞에서 우리는 (41a)가 CCC를 위반하고 있으면서도 조음 관계가 성립하고 있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 (41) a. 덴의 아파트에서, 로자는 그에게 새로운 묘기를 보여주었다.
 b. *그의 아파트에서, 로자는 덴에게 새로운 묘기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Kong (1982)의 prominence 개념에 의하면, (41)의 조음 관계를 무리없이 설명할 수 있다. (41a)는 하나의 인지적 명제단위로서, 주어는 로자이다. 그러므로 prominent한 명사는 로자이고 기타의 구성 성분인 덴과 그는 동등한 prominence를 지니고 있으며, parser의 선행사 선행 선호의 성향에 의하여 선행사-대명사의 순서로 배열된 것은 타당한 결과로 된다. (41b)가 조음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그와 덴이 선행의 조건을 어기고 있기 때문이며, 이것은 (41)에 대응하는 다음 (49)의 영어 문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

- (49) a. In *Dan's* apartment, Rosa showed *him* her new tricks. (= (41))
 b. ? In *his* apartment, Rosa showed *Dan* her new tricks.

Reinhart (1976)에 의하면 (49)는, 두 문장이 모두, *him*이나 *Dan*이 VP에 지배되는 목적어 이므로, CCC가 적용되지 않아, 조음 관계가 자유인 것으로 되나, (49b)는 조음 관계에 있어 Lakoff (1968)가 지적한 바와 같이 많은 native speaker들이 부자연스런 것으로 느끼고 있다. (Lakoff, 1968:282(34)). (49b)에서 *his*와 *Dan*은 다 같이 주어라 아니므로 prominence는 동등하다. 이런 경우에는, parser의 선행사 선행 선호의 성향 때문에 조음 관계의 성립에 부자연성을 느끼는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한국어에 있어서의 인지적 명제 단위의 분절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한다. 앞에서 우리는 한국어와 같은 비계층적 언어에 있어서는, NP의 배열 순서가 일정하지 않고 자유로우며, 부사적 요소도 문두 또는 첫째 번 NP와 둘째 번 NP의 중간에 놓이는 것이 보통이나 NP와 어순을 바꾸는 것이 비교적 자유로우므로 부사적 요소도 S에 직접 지배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그 부사적 요소의 길이나 기능에 따라 조음 관계에 있어서 차이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다.

- (50) a. *덴의 가족 중에서, 그는 천재다. (= (22a))
 b. 덴이 속하고 있는 그 가족 중에서 그는 천재다.

(51) a. *로자가 졸업하면, 그녀는 런던으로 갈 것이다.(= (25a))

b. 로자가 졸업을 했으므로, 이제 그녀는 런던으로 갈 것이다.

(52) a. 마리아는 영화를 좋아하므로, 그녀는 일요일마다 영화관에 간다.

b. 마리아는 영화를 좋아하므로, 일요일마다 그녀는 영화관에 간다.

(50), (51)은 a, b문장이 다 같이 CCC 를 어기고 있지만, a는 조용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데 반해서 b는 조용 관계가 성립되고 있다. 그것은 (50a)에서는 전치된 부사구가 독립된 인지적 명제 단위를 이루고 있지 못하지만, (50b)에서는 전치된 부사구에 관계절이 내포되어 있어 그것이 독립된 인지적 명제 단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주절과의 사이의 조용관계가 자유이다.

(51)에서는 두 문장이 다 같이 부사절이지만, a문장은 부사절이 조건을 나타내는 내용으로 주절과의 밀착도가 강하여 parser가 문장 전체를 하나의 인지 단위로 처리하고 있으나, b문장은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절로서, a에 있어서보다 주절로부터의 독립성이 강하고, 거기에다 주절과의 사이에 또 부사가 하나 끼어 있어 별개의 인지적 명제 단위로 처리되어 있다.⁸

(52)에 있어서는, a, b 두 문장이 각각 주절과 부사절이 별개의 인지 단위로 처리되어 모두 조용 관계가 성립되고 있다. 그러나 지시 기능에 있어 a보다는 b가 그 정도에 있어서 더 높은 것으로 느껴진다. a문장에서는 그녀가 마리아 이외에 그녀의 언니나 어머니 일 수도 있지만, b 문장에서는 그런 가능성이 희박해진다. 이것은 b 문장에서는 주절과 종속절 사이에 또 하나의 부사적 요소가 끼어 있어 주절과 종속절이 별개의 인지적 명제단위인 것을 더욱 뚜렷하게 나타내어 주기 때문일 것이다.

Reinhart (1976)의 c-command 개념으로는, 문체 자료로 지적되었던 (43), (44)에 대응하는 한국어를 내용을 약간 바꾸어 표시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53) a. *마리아의 아파트에서, 그녀는 도적에게 살해당했다.

b. 마리아가 새로이 가구를 구비한 5번가에 있는 아파트에서, 그녀는 도적에게 살해당했다.

(54) a. *젤다의 침대에서, 그녀는 가장 가장 기분 좋은 시간을 보냈다.

b. 젤다가 구세군에서 훔쳐온 그 침대에서, 그녀는 가장 기분 좋은 시간을 보냈다.

⁸ 영어에 있어서는 (51a)의 경우 별개의 인지단위로 처리되고 있으나 (15b), 한국어에 있어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러나 주절과 부사절 사이에 또 하나의 다른 부사적 요소가 개입하면 별개의 인지단위로 처리되는 것을 다음 예에서 볼 수 있다.

(i) 절이 기분이 좋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그는 갈 것이다.

(53), (54)의 한국어 표현에서도, b 문장들은 CCC에 걸리게 되므로 a 문장과 같이 조응 관계가 성립될 수 없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응 관계가 성립되고 있는 것은, a 문장들과는 달리, 선행하는 부사적 요소 속의 관계절이 그 자체가 내포되어 있는 부사구 proper 와 별개의 인지적 명제 단위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 본다.

4. 이상에서 우리는 영어와 한국어에 있어서의 조응 표현을 대조 고찰해 보았다. 한국어는 그 구조적인 특성에 의해, 그리고 S에 직접 지배되는 명사구 사이의 어순의 배열이 비교적 자유로운 점 등에 의하여 Reinhart (1976)의 c-command 라고 하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았다. 만약 c-command 의 개념을 따라 한국어의 조응 관계를 보증하려면, (48)에서 보인 바와 같은 여러가지 제약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Kong (1982)이 제안한 rule domain 을 인지적으로 정의하고, 인지적으로 정의된 prominence 개념과 대명사 규칙을 따르면, Reinhart 의 c-command 개념에서 설명하지 못한 사항까지 무리 없이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종래의 대명사 이론들이 기본적인 접근법에 있어 올바른데도 불구하고 일부 특정 대명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없었던 것은 대명사-선행사 간의 조응 관계에는 정적인 개념으로 정의된 통사적 및 기능적인 방법만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동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이며, 대명사 이론이 이런 동적인 측면을 포용하려면 문장인지의 기본단위인 인지단위를 coreference domain 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한 Kong (1982)의 주장이 언어 보편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하게 된다.

끝으로 다음 문장들을 비교해보라

(55) a. It was *Bill* lying there. Near *him*, John saw a snake.

b. Near *him*, John saw a snake.

(56) a. 거기에 누워있는 사람은 빌이었다. ϕ 근처에 존은 뱀을 봤다.

b. ϕ 근처에, 존은 뱀을 봤다.

(55), (56)에서 a 문장은, *Bill* 이 선행하는 담화의 화제(topic)로 되어 있기 때문에 *him*/ ϕ 의 지칭은 *Bill* /빌이라 해석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b 문장은 전후의 담화를 고려하지 않고 단독으로 발화된 문장이므로, 이 경우에는 a와는 달리 *him*/ ϕ 은 *John* /존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와같이 조응 관계가 성립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은, 문장의 길이나, 문맥이나 발화의 장의 상황, 기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므로 우리가 논의해 온 주장에는 어느 정도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더욱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 Hale, Ken, L. Jeanne, and P. Platero. 1977. Three Cases of Overgeneration. *Formal Syntax*, ed. by Culicover, P., T. Wasow, and A. Akmajian. Academic Press.
- Kong, Y. 1981. Perceptual Nature of Pronoun Comprehension in English.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Kyung Hee University.
- _____. 1982. 대명사의 인지. *Linguistic Research* 3, 11-26. Kyung Hee Language Institute.
- Lakoff, G. 1968. Pronouns and Reference. *Syntax and Semantics* 7, ed., 1976. by J. McCawley. Academic Press.
- Langacker, R. 1969. On Pronominalization and the Chain of Command. *Modern Studies in English*, ed. by D. Reibel and S. Schane. Prentice Hall.
- Lasnik, H. 1976. Remarks on Coreference. *Linguistic Analysis* 2, 1-22.
- Reinhart, T. 1976. The Syntactic Domain of Anaphora.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MIT.
- Ross, J. 1967. Constraints on Variables on Syntax.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MIT.
- Saito, C. 1981. A Contrastive Study of English and Japanese Anaphoric Expressions. *English Linguistics* 24, 99-113.
- Wasow, T. 1972. Anaphoric Relatives in English.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MIT.
- _____. 1979. Problems with Pronouns in Transformational Grammar. *Syntax and Semantics* 10, ed. by F. Henry & H. Schanelle. Academic Press.